

"삼부대전"의 조선반도 전파

[한국] 박성일 (호남대학 악록서원)

초록

중국 명조와 조선왕조 개국 초기의 관학은 모두 정주학을 따라 발전했다. 1392년 조선 개국 직후 명조와 사대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1402년 명 성조 즉위 후 명조는 이학 전적을 선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419년 명 성조가 처음 선사한 "삼부대전"이다. "삼부대전"은 호광, 양영, 금유자 등 학자들이 명 성조의 칙명을 받들어 편찬한 유가 경전 합집 『사서대전』 『오경대전』 『성리대전』의 합칭이다. "삼부대전"이 조선반도에 전입된 후 빠르게 조정 내 경연의 중요 서적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조정은 적극적으로 "삼부대전" 초본을 인쇄 간행했다. 1446년 조선 세종이 한글을 발명한 후, 이학 전적을 보급하기 위해 조선 이학자들은 또한 "삼부대전"에 대한 언해 작업을 했다.

키워드: 명조, 조선, 이학전적, 삼부대전, 언해

1. "삼부대전" 전입 전 정주학의 전파

조선반도의 성리학은 원 간섭기(1259-1356)의 고려 유가사상 기초 위에서 발전해 왔다. 15세기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태위로서 연저에 머물며 만권당을 지어 서사로 스스로 즐겼다. 제현을 불러 도에 이르니, 당시 요수, 염복, 원명선, 조맹부 등이 모두 왕문에 노닐었고, 제현이 서로 따르니 학문이 더욱 진보했으며, 수 등이 칭찬하여 그치지 않았다." 이제현(1287-1367)은 원조에 들어간 기간 동안 이미 퇴위한 고

려 충선왕(1298-1313)을 따라 요수(1238-1313), 염복(1236-1312), 원명선(1269-1322), 조맹부(1254-1322) 등 원나라 유학자들과 교류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원대 이학 학맥 관계에 따르면, 요수(1238-1313)는 허형(1209-1281)의 문생이고, 원명선(1269-1322), 우집(1272-1348)은 모두 오징(1249-1333)의 문생이며, 조맹부(1254-1322)는 오징 이학을 계승한 인물이다. 조선 학자 이선(1632-1692)은 그의 『지호집』에서 이제현의 스승 백이정(1247-1323)이 주자학 전적을 구한 경력을 언급했다: "연도에 무릇 10년간 머물렀다. 당시 정주의 학문이 처음 중국에서 행해지기 시작했으나 아직 동방에는 미치지 못했다. 공이 원에서 이를 배울 수 있었고, 정주 성리서를 많이 구해 돌아왔다. 이제현, 박충좌가 가장 먼저 사수했다. 그리고 국제 권박이 또한 사서집주를 조판하여 그 전파를 넓혔다. 동방 학자들이 정주를 존송하게 된 것은 공의 힘이다." 이선의 표현에 따르면, 백이정이 원에 체류한 시기는 마침 중국이 정주학을 추광하기 시작한 때였으나, 이때 정주학은 아직 조선반도에 전입되지 않았다. 백이정이 체계적으로 정주학을 고려로 도입한 후, 이제현과 박충좌(1287-1349) 등이 그를 스승으로 모셨고, 권박(1262-1346)이 『사서집주』의 조판 작업을 했다. 그들과 동시기의 이색(1328-1396)은 그의 문집 『목은집』에서 당시 중국의 경술 상황을 논했다: "송의 사직이 이미 무너지자 그 학설이 북으로 흘렀는데, 노재 허 선생이 그 학문으로 세조를 보좌하니, 중통 지원의 치세가 모두 여기서 나왔다. 오호 성대하도다!" 이 평가는 원조 문화가 계계사(1274-1344)가 『문정오공신도비』 일문에서 "황원이 명을 받자 하늘이 진유를 내렸으니, 북에는 허형이 있고 남에는 오징이 있다"고 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색은 문중에서 오징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허형의 학술이 원 세조(1260-1294)의 통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높이 평가했다. 원조 대도에 체류하며 정주 이학을 접수한 고려 학자들은 고려로 돌아온 후 정치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고, 대량의 새 시대 사대부를 배양했는데, 후에 이들을 "신진사대부"라 칭했다. 신진사대부는 두 파로 나뉘었다: 한 파는 신왕조 건립을 지지하는 급진파 사대부였고, 다른 파는 내부 개혁을 지지하되 신왕조 건립을 반대하는 온건파 사대부였다. 두 파 사대부는 일찍이 같은 문하에서 신유학을 배웠는데, 예를 들어 이색 문하에는 왕조 전복을 반대하고 후세에 "동방 이학 조종"이라 불린 정몽주(1337-1392)가 있었고, 또한 신왕조 건립을 지지한 조선 개국 재상 정도전

(1342-1398)도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건국 전에 두 가지 성리학 정치 이념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급진파 사대부가 신왕조 전중기 사상을 주도했고, 후에 몇 차례 충돌을 거쳐 온건파를 계승한 사대부가 조선 후기부터 만기까지의 사상을 주도했다. 어떤 의미에서 조선 전기 급진파와 온건파의 정주 이학 관념상의 충돌은 조선반도 내 유가사상을 더욱 본토화시켰다. 조선 개국기 성리학 문제로 돌아가면, 정도전은 『도은문집서』에서 사상 보계를 정리했다: 우리 동방이 비록 해외에 있으나 대대로 화풍을 모방하여 문학의 유가 전후로 상망했다... 근세의 대유로는 계림 익재 이공이 있어 처음으로 고문의 학으로 창도했다. 한산 가정 이공, 경산 초은 이공이 이를 따라 화응했다. 지금 목은 이 선생이 일찍 가정의 훈을 승습하고, 북학 중원하여 사우 연원의 정을 얻어 성명도덕의 설을 궁구했다. 동쪽으로 옮긴 후 제생을 연인했다... 이제 현(호 "익재")이 고문을 제창하자 이곡(1298-1351)과 이인복(1308-1374)이 그를 따랐다. 그 후 이곡의 아들 이색(호 "목은")이 원조에서 유학을 배우고 귀국 후 세 세대 유학자를 배양했다. 위에 열거한 이학자 명단을 보면, 그는 조선 전기 성리학이 받은 원조 유가 학파의 영향을 긍정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는 신왕조 개국 전 급진파와 온건파 유생의 스승이었다. 즉 조선 이학 자체가 바로 이색 학술의 연신이었다. 그의 이학 사상은 또한 이후 조선왕조 이학 사상 발전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 요소가 되었다. 이색은 개국초 조선왕조 이학의 아버지로서, 그의 유술은 기본적으로 세 방면에 체현되었다: 첫째는 원유 허형의 "기"론 영향을 깊이 받았고, 둘째는 그의 스승 이제현이 중시한 수양과 실천 사상의 인도를 받았으며, 셋째는 그의 부친 이곡의 "유석도 삼교 융합" 사상을 존승했다.

이색 문하 제자들 간의 정치 이념상의 분기는 바로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형성되었고, 이후 조선 유학 사조사의 기본 형태를 전정했다. 급진파 사대부는 혁명 기계로서의 "성리학"을 추승했고, 온건파는 개인 수양으로서의 "도학"을 중시했다. 한때 "사장"과 "도학" 관념 문제로 발전했고, 또한 "관학"과 "사학" 간의 쟁론에 영향을 미쳤다. 정도전은 『불씨잡변』 일문에서 "심통정성"의 뜻에 대한 그의 이해를 논했다:

심이란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어 태어나는 기이니, 허령불매하여 일신을 주재하는 것이다. 성이란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어 태어나는 리이니, 순수지선하여 일심에 갖추어진 것이다. 대개 심은 앎과 행함이 있고, 성은 앎과 행함이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

를, 심은 성을 다할 수 있으나 성은 그 심을 검하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심통정성이라 했다. 또 말하기를, 심은 신명의 사이고, 성은 곧 그 갖추어진 리라고 했다. 이를 보면 심성의 변을 알 수 있다. 『심기리편』에서는: "이 리가 있는 연후에 이 기가 있고, 이 기가 있는 연후에 양의 경칭한 것이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음의 중탁한 것이 내려가서 땅이 된다. 사시가 이에 유행하고 만물이 이에 화생한다. 사람이 그 사이에서 천지의 리를 온전히 얻고, 또한 천지의 기를 온전히 얻었다."

이 표술에 근거하면, 그의 정주 이학 입장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문중에서 이미 점차 정주 이학의 "심과 성" "성과 리" 등 개념을 흡수한 유학 형태를 볼 수 있다. 위의 표술은 『주자어류』 중 주희가 장재(1020-1077)의 "심통성정"을 해석한 것과 유사한데, 즉 "성이란 리이다. 성은 체이고 정은 용이다. 성정이 모두 심에서 나오므로 심이 이를 통할 수 있다. 통이란 통병의 '통'과 같으니, 이를 주재함이 있다는 말이다." 『허문공어록』에서 허형은 "심통성정"의 뜻을 해석하여: "천은 곧 리이다. 있으면 일시에 있으니 본래 선후가 없다. 심은 성정을 통솔하는 것이다. 성은 심의 체이다. 정은 심의 용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도전은 주희와 허형의 "심통성정"설을 충분히 흡수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도통관"은 습관적으로 "문도론"으로 보여졌다. 따라서 "관도"나 "재도" 문제에서 상당한 쟁의가 있었다. 정도전은 『도은문집서』 일문에서 당시 필요한 유가 문풍에 대한 구상을 제출했다: "일월성신은 하늘의 문이고, 산천초목은 땅의 문이며, 시서예악은 사람의 문이다. 그러나 하늘은 기로써, 땅은 형으로써, 사람은 도로써 한다. 그러므로 문은 도를 신는 그릇이라 한다. 사람의 문이 그 도를 얻으면 시서예악의 가르침이 천하에 밝아져, 삼광의 행을 순하게 하고 만물의 마땅함을 다스려, 문의 성이 여기에 이르러 극에 달한다... 황명이 명을 받아 천하를 가지니, 덕을 닦고 무를 그치며, 문제가 필동했다. 그 예를 제하고 악을 작하며, 인문을 화성하여 천지를 경위한다."

송림의 『화천서사기』 일문에서 위와 유사한 표술을 볼 수 있는데, 그 문에: "일월이 조요하고, 풍정이 유행하며, 운하가 권서하여 변화가 무상한 것은 하늘의 문이다. 산악이 열지하고, 강하가 유폐하며, 초목이 발월하여 신묘막측한 것은 땅의 문이다. 군성인이 천지와 참하여 천지의 문을 인문으로 발한다." 위 원문만 보면 그 기본 내용은 유협의 『문심조룡·원도』 중 "무릇 현황이 색잡하고 방원이 체분하며, 일월이 침벽하

여 여천의 상을 드리우고, 산천이 환기하여 리지의 형을 펼치니, 이는 대개 도의 문이다" 등 내용과 유사하다. 시대 배경을 고려하면 고연히 저자의 창작 주지를 볼 수 있는데, 즉 "송유술을 기로 삼는다"이다. 그러나 "재도"에 관한 토론은 송대 이전에도 자주 출현했다. 저자가 천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으로서의 신왕조 문화도 아니고 심성에 대한 견해도 아니라, 당시 신왕조가 직면한 현실 수구에 절합하고자 한 것인데, 즉 "문궤필동"하여 당시 중원을 통치하던 명조 유학 문화를 인진하는 것이었다. 원문 중의 "그 예를 제하고 악을 작한다"는 당시 조선왕조 개국 시기의 유학자들이 이미 명대 유학 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음을 표명한다. 정도전이 보기에, 원문 앞 단락의 "인문이 그 도를 얻는다"를 돌출시키기 위해, 조선은 응당 명조 유술을 모방해야 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문궤필동"이 최종적으로 조선왕조 유학자군이 명대 유가 문화를 접수한 후의 이상 상태가 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조선왕조 건국 전후 어떻게 이학을 인지하고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토론을 거쳐, 조선 학자들이 이학에 기초하여 개국 초기 문화를 전정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명조와 조선왕조 두 왕조가 모두 14세기에 개국했고, 신왕조 건립을 주도한 공신군이 모두 유학 치국을 본으로 주장했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 명조와 사대외교 관계를 건립한 조선도 이에 거하여 형성된 것이다. 조선 학자 박태무(1677-1756)는 『책문』 일문에서 명대 초기 이학 보계를 간술했다: 명조 이학에는 진위의 별이 있다. 후학이 마땅히 명변해야 할 것이다. 송경렴은 백운 허씨 문제가 되어 주자 범문에 연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단지 문사가 있을 뿐 실천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무슨 연고인가? 이로부터 이후 이학가라 칭한다. 박태무는 명대 초기 이학 개창자가 바로 주자 이학을 존승한 송경렴이라고 인위했다. 원문 중의 "문사"라는 단어의 함의는 "경전의 뜻이 아니다"이다. 즉 송렴이 명대 이학 문도의 전범으로서 "재도와 관도"의 문 외의 기타 문류는 모두 지엽으로 시되었다. 조선 학자 이유원(1814-1888)은 『김정희성』 일문에서 이학 보계를 게시했다: 성인을 나는 보지 못했다. 나는 육경에서 성인의 마음을 구했다. 우리 도가 송조에 성하여 양정씨와 주부자가 나왔다. 황조에 이르러 송경렴은 그 화를 얻었고, 방정학은 그 대를 얻었다. 이유원은 이학이 송대에 성행했고, 명대에 이르러 송렴과 방효유 이후 이학이 점점 더 발달했다고 인위했다. 이 문에서 송렴과 방효유의 명 이학상 위치를 긍정했다. 조선 후기 학자의 명 전기 이학에

대한 논술에 근거하여, 어떻게 조선 전기 유학자가 명대 전기 이학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을 증명할 것인가? 이 문제의 선택은 의심할 여지없이 "삼부대전"의 전입에 있다.

2. "삼부대전"의 전입

조선 학자 신익성(1588-1644)은 『서김백후조경일록후』 일문에서 썼다: "본조가 홍무 임신에 봉을 받았으나 영락 이후에야 비로소 의장, 서적, 경조의 절을 사여받아 내복과 동일시켰다. 대개 현묘가 조천하여 역알연저하고, 성신이 구회하여 계합소응했으며, 개옥 이후 은조가 미용하여 수백 년간 울연히 동문의 미가 있었다." 문중에 언급한 대로, 조선이 명 태조의 책봉을 받은 후 명조 황실이 다시 이학 서적을 궤증하지 않다가 명 성조 즉위 전에야 회복되어, 조선이 비로소 전면적으로 명조 이학을 흡수할 수 있었다. 1402년 연왕 주체가 즉위하여 명 성조가 된 후 여러 차례 이학 서적을 궤증했는데, 『대학연의』 『춘추회통』 『주자전서』 『열녀전』 『예부의주』 『통감강목』 등 이학 서적이 있었다. 이로써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에 명 황제가 이학 전적을 궤증한 기재가 나타난 것이 가장 이른 것이 명 영락 연간임을 알 수 있다. 명 황제가 궤증한 이학 전적 외에도 조선 문인이 왕명을 받들어 명조에 사신으로 갈 때 연도에서 이학 관련 서적을 구매하기도 했다. 명조 관방이 간인한 이학 전적이 조선반도에 전입되어, 조선 문인들이 이를 관방 학문의 이학으로 삼는 데 충분한 영향을 미쳤다.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반도 역대 이학자 문집에 일찍이 자주 "성리"라는 단어가 출현했는데, 일찍이 고려 말 조선 초기 학자 이곡의 『가정집』에 "성리지문", 이색의 『목은문고』에 "성리서" 등이 나타났다. 조선 개국 후 편찬된 문집에는 "성리지학"이라는 단어가 빈번히 출현했는데, 정도전의 『삼봉집』과 권별의 『해동잡록』에 모두 "성리지학"이 있었다. 조선 이학자들은 "성리"를 "정주학"보다 훨씬 많이 사용했고, 이 특징은 줄곧 조선왕조 멸망까지 연속되었다. 신왕조 건립을 주도한 급진파 사대부가 신조정 체제를 기획할 때 일찍이 적극적으로 명조와 사대외교 관계 건립을 주장했다. 그들이 이학지방을 건구하는 과정에서, 이왕에 신사상 이념으로서의 송유학이 점점 관

학의 위치로 진승했다. 이 과정에서 또한 명초 관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영향이 가장 명현한 흔적은 명 영락 연간에 편수한 "삼부대전"이 조선반도에 전입된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종합적인 역사 맥락을 보면, 후에 한국 학자가 이학의 관방 학술 특징을 돌출시키고자 하여 이를 "성리학"이라 칭한 정황이 "정주학"과 "주자학"보다 빈번했다. 조선 이학자들은 귀근결저 최초에 어떤 경로로 "삼부대전"을 얻었는가? 『명사』와 『조선왕조실록』에서 명조 "삼부대전" 전파 및 접수의 기재를 볼 수 있다:

황제가 배를 매우 후대하여 예부에 명하여 세자 체가 조건할 때의 예에 비조하여 접대하게 했다. 하루는 배를 승전상으로 조했는데, 제가 어좌를 내려와 배가 끓은 곳에 임립하여 한 손으로 모자를 벗고 한 손으로 계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네 아버지와 네 형이 모두 왕인데 너는 무우의 땅에 거하니 평거에 마음을 쓸 곳이 없어서는 안 된다. 업학하느냐? 업사하느냐? 마땅히 스스로 경신하여 독서해야 한다." 특별히 어제 서문이 있는 신수 『성리대전』, 사서오경대전 및 황금 100량, 백은 500량, 색단라채견 각 50필, 생견 500필, 말 12필, 양 500두를 사여하여 총이했다. 『조선세종 1년 12월 7일 정축 제3기사』

4년에 거가 서를 사여했다: "진금이수는 짐이 귀하게 여기는 바가 아니니 헌납하지 말라." 후에 또 거에게 칙했다: "금옥의 기는 너희 나라 소산이 아니니 마땅히 그치고, 토물로 성을 효할 뿐이다." 8년에 거가 자제를 보내어 태학이나 요동학에 예하기를 주청했으나 제가 허락하지 않고 『오경』, 『사서』, 『성리』, 『통감강목』 제서를 사여했다. 『명사·외국일』

우리나라가 사서오경 『성리대전』 등 서를 흡수하니 상실정미하여 성위동방지보이다. 이로 인해 곧 조정이 신찬한 제사제서에도 역시 반드시 많이 있을 것을 알았다." 의가 답했다: "태종 황제가 유신에게 명하여 고금 제사제서를 박채하여 찬술성서하니 이름하여 『영락대전』이라 했다. 가령 천자는 곧 고금에서 천자의 뜻을 훈한 것을 모으고, 지자는 곧 고금에서 지자의 뜻을 훈한 것을 모아, 제자의 뜻에 이르기까지 막불개연하다. 천하사물의 리가 모두 『대전』에 있다. 『조선세종 17년 12월 13일 경술 제5기사』

조선 세종(1397-1450) 즉위 직후, 조선 태종의 서자 경녕군 이배(1402-1458)가 사은사 신분으로 정역(?-1425), 홍여방(?-1438) 등 문인과 함께 명조에 사신으로

갔다. 명조에서 하루는 명 성조가 이배를 관대하며 친히 명 성조 서문이 부착된 『성리대전』 『사서오경대전』을 궤증했다. 이배가 명조에 사신으로 가기 전 2년(1417년), 명 성조는 이미 "삼부대전"을 육부, 천하 군현학에 반포하라고 하명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배가 명조에 사신으로 갔을 때 "삼부대전"이 명조 내에서 조이 보급되었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조선왕조실록』의 사관이 "신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신수"라는 단어를 통해 조선 조정과 그 관주 명조 이학 전적의 성서 정황을 추측할 수 있다. 이 일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명 황제가 친히 "삼부대전"을 궤증한 첫 번째 기재이다. 이학 전적의 전파와 접수사 관점에서 보면, 명 성조가 친히 "삼부대전"을 궤증한 일은 이왕의 이학 전적 하사와 매우 다른데, 즉 "첫 번째 명조가 편찬한 전적"이다.

이배가 명조에서 "삼부대전"을 가져온 일 외에, 조선 세종 8년(1426) 명 선종(1426-1435)의 칙서에서 "삼부대전" 궤증을 언급했다. 『조선왕조실록』 기재에 따르면, 이 시기 명조가 궤증한 "삼부대전", 『송사』 등 서적은 명 선종이 조선 세종의 청구에 안조하여 증여한 것이었다. 『조선왕조실록』 기재에 근거하면, 이 7년간 명조가 두 차례 "삼부대전"을 궤증했다. 명 선종이 "삼부대전"을 궤증한 지 얼마 안 되어, 검토품 설순(?-1435)이 일찍이 경연에서 『성리대전』을 평가하여 말했다: "신이 황제가 소사한 『성리대전』을 보니, 그 문이 진서산 『갑집』을 방한 것 같고, 의론이 정통하며 중설이 해비되어, 성학자가 마땅히 숙완해야 할 바입니다. 원컨대 간행광시하여 등과한 연소한 유로 하여금 습득하여 이학을 연궁하게 하소서. 또한 문장을 하는 자는 반드시 이학에 정해야 곧 능히 대달할 수 있습니다." 설순이 보기에 『성리대전』은 남송 이학자 진덕수(1178-1235)의 저문 풍격을 모방하여 편찬한 이학 서적과 유사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삼부대전"의 전입이 조선 조정으로 하여금 더욱 명조 이학에 관주하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 세종은 명조에 유학 제도 회복을 청구하기로 결심했다. 피시 명조가 전면적으로 폐관쇄국과 해금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에, 양국 간 관방 사의 외(예: 황제 고명지사, 조공지사)에는 기여 사무가 모두 비관방 인사의 수의 입경을 불허했다. 조선은 오직 조천사를 통하거나 조선에 사신으로 온 명조 문인과 교류해야만 명대 당시 문화 정황을 알 수 있었다. 조선 태종 재위 기간에 명 황제 하사 또는 조선방 구사 두 가지 방식으로 명대 관방 정주 이학 전적을 얻었다.

조선 세종은 일찍이 명 황제에게 상주하여 조선 왕족 자제가 명조 본토 내 또는 당시 양국 변경에 처한 요동 지구에서 유학하기를 구했으나, 명 선종은 명조 경내 입학을 불허했지만 이학 전적 궤증으로 변환 방식을 삼아 조선 일방이 명대 당시 유술을 체회하게 하는 데 동의했다. 명조가 조선 왕족 자제의 명조 유학을 거절한 후, "삼부대전"이 연기한 역할은 더욱 중요해져, 조선 조정 내 유학자들로 하여금 더욱 명조 당하 유술 추세에 관주하게 했다. 『조선왕조실록』 기재에 따르면, 조선 세종이 "삼부대전"을 열람한 후 "삼부대전" 간행 인쇄를 명하여 전국 각지 교육 기구에 반포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삼부대전"이 조선반도에 전입된 지 얼마 안 되어 조선 관방 이학 사상의 표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이 명대 유학 전적을 인진한 것부터 조선 교육 기구에 응용되기까지, 명대 유학 문화가 조선 본토 문화와 교류와 융합을 실현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유학이 점차 조선반도에서 본토화, 민족화되었다. 조선 세종이 "삼부대전" 간행을 하명한 의도는 단지 조정 관학 공고에 한정되지 않고, 이학 문화를 민간에 보급하는 데도 있었다. 1432년 조선 세종은 유가 윤리를 강화하는 교화류 서책 편찬을 원했고, 110명의 중국과 조선 충신, 효자, 열녀 고사를 집록했다. 조선 세종이 대부분 조선 백성이 한자를 모른다는 것을 고려하여 삽화 방식을 채용하여 화책을 만들고 『삼강행실도』라 명명했다. 『삼강행실도』의 성서 구조를 보면 이학 문화의 본토화와 민족화의 전형적 예로 볼 수 있다. 조선 세종은 화책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데 일정한 국한성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새로운 문자 체계를 창조하기로 결심했다. 1446년 조선 세종이 정식으로 한문 사용을 반포했다. 한문의 발명은 "삼부대전" 및 기타 이학 전적의 전파를 더욱 진일보하게 본토화와 민족화시켰다.

3. "삼부대전" 전입 후의 반향

"삼부대전"이 조선반도에 전입되기 전, 원조 이학자 호병문(1250-1333)이 편찬한 저작 『사서통』, 예사의(생물 미상)가 집석한 『사서집석』이 조선반도에 유통되었으나, 조선 본토 내에 인진된 주해 이학 경전 서적은 매우 적었다. "삼부대전" 전입 후 조선 세종이 "삼부대전" 보급을 하명했고, 조선 전기 유학자 변계량(1369-1430)이 『사서

『오경성리대전발』을 제목으로 "삼부대전" 간인본의 서발을 작성했다. 변계량은 하문에서 명조가 "삼부대전"을 하사하여 조선 본토 내 정형을 전입한 것을 교위 상세히 묘술했다:

오경사서와 『성리대전』은 황명 태종 문황제가 유신에게 명하여 편집한 책이다. 제가 우리 전하의 호학이 지성에서 나옴으로 인해 특별히 이 책을 사여했다. 책은 총 229권으로, 우리 전하가 그 전을 광하기를 사했다. 경상도 감사 신 최부, 전라도 감사 신 심도원, 강원도 감사 신 조종생에게 명했다. 재저도에서 조재했다. 신이 절위하건대 우리 동방은 문적이 선소하여 학자가 그 미진함을 병으로 여겼다. 대송 이래 제유의 설로 경서를 보익한 자가 무릇 120인인데, 모두 이 책에 구비되어 일람이 요연하다. 지금 이 간행은 기비오동방 학자의 행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 주상 전하가 제폐를 흠승하고 성학을 집회하는 성심과, 광혜 후학하여 인심을 숙하는 덕교여. 오호 지재.

위 서발 내용에 따르면, "삼부대전"이 명조에서 조선 본토 내로 전입된 지 얼마 안 되어 조선 세종이 경상, 전라, 강원 등 지방관에게 명하여 당지에서 전면적으로 "삼부대전" 간인 작업을 진행하게 했다. 불가불제한 것은 변계량이 발문에서 "삼부대전"이 송대 이래 학자의 주해를 포라하여 일목요연하다고 고도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간인하여 반포하는 것 외에 조선은 또한 "삼부대전"의 언해 작업을 전개했다. 1443년 조선 세종이 한문을 발명했다. 1448년 조선 세종이 집현전 학사 김구(?-1462)에게 명하여 『사서대전』의 언해본을 작성하게 했다. 1458년 조선 세조(1455-1468)가 『사서대전』 『오경대전』을 정인지(1396-1478), 신숙주(1417-1475) 등 조정 문신에게 반포하고 이 양본 대전의 언해 작업을 시작하라고 하명했다. 조선 학자 안정복(1712-1791)의 『상헌수필』 기재에 따르면, 『사서대전』 『오경대전』 언해 작업은 유송조(1452-1512)에서 시작되어 조선 선조(1552-1608) 시기에 교정청을 설립한 후 얼마 안 되어 완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언해에 참가한 이학자들이 "삼부대전" 주소방식의 영향을 깊이 받아, 일부 조선 학자가 『사서대전』 『오경대전』의 주해를 했는데, 이황(1501-1570)의 『경학석의』, 이이(1536-1584)의 『사서석의』, 이덕홍(1541-1596)의 『사서질의』, 김장생(1548-1631)의 『경서변의』 등 저작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사서대전』 『오경대전』과 달리 조선 학자가 "절요" 방식으로 『성리

대전』을 주해했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기재에서 가장 일찍 국왕이 『성리대전』 주해를 하명한 것을 언급한 것은 조선 성종 시기(1469-1494)였다. 조선 중종(1506-1544) 시기 학자 김정국(1485-1541)이 일찍이 『성리대전서절요』 간행을 주지했는데, 그 형 김안국(1478-1543)이 『성리대전절요』 제발에서 말했다: "사서오경 사감집선 등 서는 송학이 이미 중하고 간행이 이미 많아 용혹이구하며, 본도에도 판본이 많아 열독하려는 자가 불난치할 수 있다. 성리대전 일서에 이르러서는 곧 이학의 원본이요 경서의 우익이니, 사가 구지어고하면 부도이기송사장위무한다." 제발에서 김안국이 『성리대전』을 고도로 평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파워유취한 것은 조선 중종 시기의 이학도가 양파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이학 전적 본신에 기초한 것을 강조하는 "도학파"이고, 다른 하나는 작문을 고려하는 "사장파"였다. 김정국은 도학파 대표 인물 김굉필(1454-1504)의 영향을 깊이 받아 강렬하게 사장학을 비판했으므로 편찬할 때 『성리대전』의 시문 부분을 철저히 삭제했다. 후에 조선 명종(1545-1567) 시기 이학자 이정(1512-1571)이 『성리유편』을 편찬할 때 『성리군서』 『성리대전』을 참고한 후 『성리대전서절요』가 삭제한 시문 부분을 수록했다. 김정국과 동시기 이학자 주세붕(1495-1554)이 목각판 『성리대전서절요』 발문에서 말했다: "이 서가 이미 간행되어 내외에 행해졌다. 그러나 간질이 한만하여 빈사가 원전하되 불득한 자가 상다하다. 비록 이를 얻어도 그 요령을 회하는 자도 역시 선하다. 문소사재 김상공정국이 곧 그 종적을 찰하여 총약간 편을 만들어 이름하여 성리절요라 했다." 주세붕은 김정국이 『성리대전』이 공 70권으로 편폭이 호대하고 해석 난도가 매우 높음을 고려하여 『성리대전』의 요를 조하여 『성리대전서절요』를 편한 것이라고 인위했다. 『성리대전서절요』는 공 4권 4책으로 구성되었다: 권1은 『성리대전』 권1-25 송유 저술 부분 내용을 선취했고, 기타 권은 『성리대전』 권26-69의 내용을 개괄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성리대전서절요』가 『성리대전』의 "이기"와 "역" 부분을 수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대 배경에서 그 선택을 삭제한 것을 추단할 수 있다: 일, 김정국 이후 이황, 이이를 대표로 하는 이학자가 "이기"를 탐토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조선 이학은 아직 명조 이학 전적을 학습하는 상태에 침침해 있었다. 이황, 이이와 동시기 학자 박승임(1517-1586)이 『성리유선』을 저술했는데, 이 책의 성서 구조는 『성리대전서』 『성리유편』과 일양하며, 박승임은 『성리대전』의 핵심 내용을 선취했다. 유취한 것은 『성리

유편』이 『성리대전』 권26~38의 이기, 귀신, 성현, 성리 부분을 수록했다는 것이다. 『성리대전』은 북송 학자 소옹(1012-1077)의 『황극경세서』를 수록했다. 『조선왕조실록』 기재에 따르면, 조선 성종 시기 문신 이극배(1422-1495)와 강희맹(1424-1483)이 경연에서 국왕에게 계품하여 『성리대전』에 수록된 『황극경세서』를 언급했는데, 그 오의는 병비소유인이 능리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홍문관 관원을 택하여 그서를 예습하게 했다. 후에 김정국과 동시기 문신 최세진(1468-1542)이 말했다: "집주서(『실록』 중의 "『황극경세서집람』")를 참열하지 않으면 『성리대전』에 수록된 『황극경세서』를 이해할 수 없다." 9년 후 최세진이 명조에 사신으로 가서 귀국하여 중종에게 아직 조선에 전입되지 않은 원말명초 학자 주은로(?-1357)가 작한 『황극경세서설』 12권을 진헌하고 『황극경세서』 간행을 청구했다. 3년 후 김정국도 동양하게 『황극경세서』 간행을 청구했는데, 이 책이 소옹의 문장을 열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역경』 강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조선왕조실록』 기재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최세진과 김정국 등 조선 전기 문신이 『주역』 경전 본신에 불숙한 것이 아니라 중국 역대 제가의 『주역』에 대한 주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조선 이학자는 『삼부대전』 언해 및 정리를 통해 후에 주해의 의오처를 제출하는데까지 달했다. 조선 선조 시기 이학자 유희춘(1513-1577)이 그의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의 일기에 교정 주석의 경력을 기록했다: "초십일. 논어석소 제1책을 교정했다. 십삼일. 경상도사 김천일 사중이 서래했다. 성리군서 의오처도 역사래했다. 십사일. 정사인 철이 『소학기』 의난처를 물었다. 나는 즉일일답지했다. 차청염후래차했다. 상환 『논어석소』운: 나와 송균 정순이 동의 『논어석소』했는데, 송균이 석 "관저락이불음락"을 불약운 "락"이라 하여, 나는 즉종지했다." 유희춘은 일기에서 김천일(1537-1593), 정철(1536-1594)과 토론한 어가의 『성리군서』 『소학기』 주해 방면의 존의를 상술하지 않았으나, 송정순(?-?)과 토론한 『논어석소』 중 『논어·팔일』의 "자왈: 『관저』, 락이불음, 애이불상" 문제를 간술했다. 유희춘과 동시기 이학자 기대승(1527-1572)이 경연에서 "삼부대전"을 비판하여 말했다: "영락 황제가 『사서』 『오경』 및 『성리대전』을 찬집하라 명했는데, 주자의 뜻을 부지하고 찬수처가 다유지했다. 『시』 『서』 『논어집주』가 선유의 논과 괴리처도 역다유지했다. 우리 세종 만년에 집주를 부견하고 범 『사서』는 지인대문대주이람지했다... 『논어집주』는 부수견지했

다. 일도람편지후, 즉이대문대주책견지위당의." 기대성은 경연에서 "삼부대전"의 주소 문제가 양방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 주자의 뜻을 불효하고 찬수했다; 이, 수록한 『시경』 『서경』 『논어』의 집주가 선유 주해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비록 기대성이 경험에서 하체에 이상 양문제가 존재하는지 상술하지 않았지만, 기대성은 조선 세종 만년에 대주만 읽은 안례를 인용하여 자기 이학 입장을 지탱했다. 기대성은 "집주"가 당연히 독자로 하여금 일목요연하게 하지만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안화료란하게 한다고 인위했다.

총이언지, 조선 이학자가 언해 작업부터 "삼부대전"을 주해하는 과정에서 조선 이학이 반영한 시대 배경을 정현했는데, 예를 들어 『성리대전서언해』에서 시가 부분을 삭감했고, 『성리유편』이 『성리대전』의 시가 부분을 수록했으며, 『성리류선』이 이기 부분을 수록한 것 등이다. 16세기 후기의 유희춘과 기대성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수록 및 삭감 문제를 담론하지 않고 주소상의 의오처를 찾아내는 것으로 발전했다. 조선 이학자가 언해 및 주해한 이단 역사는 조선왕조가 점차 이학지방을 건구했음을 표명한다.

결어

조선 중종 시기 대표 이학자 조광조(1482-1520)가 『사실』 일문에서 조선 세종 시기의 이학을 평가했다: "고려 때는 비록 학문을 했으나 지주사화했다. 려말 우탁, 정몽주 후에야 비로소 성리지학이 있음을 알았다. 우리 세종조에 급지하여 예악문물이 환연일신했다." 원문에 언급된 "예악문물환연일신"에 안하면, 조선 세종 재위 시기가 확실히 명 영락 연간에 편수한 이학 전적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시기와 다른 것은 조선 세종 시기가 직접 전면적으로 중국 이학을 흡수했고, 동시에 조선 본토화의 이학 사상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조선 세종 시기부터 최초로 단지 학문 연구 기관인 "집현전"의 직권 범위를 점보 확전하여 중국의 한림원에 접근하게 했다. 집현전 직권 범위의 확대에 수착하여 간인 사업도 순리롭게 진전되었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명 영락 연간에 편찬한 "삼부대전"과 "삼부대전" 편찬에 참여한 인원 배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명조 "삼부대전"의 전입은 조선 전기의 이학 인식 기초를 전정했다. 조선 정조(1776-1800)가 『십삼경초계문신과시』에서 평가했다: "일자황명 영락 중에 사서오경을 학궁에 반포한 후로, 면원의 유, 하유의 생이 동이습지하고 백수분여한 자가 요불리호호광, 해진의 대전이다." 조선 정조 시기의 정약용(1762-1836)도 유사한 평가가 있다: "급부대명어세, 문명매월하면 우존신주자하고 금지이설하며, 사서, 삼경을 학궁에 반하고, 호광, 해진이 『대전』을 찬차하여 천하 학자로 하여금 개득이기지절의하고 일기취상하게 했다." 그들의 평가는 명 영락 연간에 편수한 이학 전적이 이미 당시 사회의 주류 사조가 되었음을 표명한다. 16세기 초, 중조 양국 관방 전파 유정을 경과하지 않은 왕수인(1472-1529)의 『전습록』이 조선에 전파되었으나, 조선 관학은 여전히 정주 이학을 고수하고 강렬하게 육왕학을 배척했으며, 심지어 명조 내에서 유행하는 육왕 사상을 강렬하게 비판했다. 당시 "삼부대전" 언해 작업에 참여한 이황, 이이, 이덕홍 등 일비 조선 이학자가 육왕학을 비판했다. 이와 동시에 진현장(1428-1500)의 『백사자전집』, 설선(1389-1464)의 『독서록』, 정민정(1446-1499)의 『도재시도』, 계속일편, 나흠순(1465-1547)의 『곤지기』, 진건(1497-1567)의 『학부통변』 등 대량의 명조 이학자 저작이 조선반도에 전입되었다. 16세기 전중기 조선 이학자가 이들 서적을 접촉한 후, 조선 이학자 간에 "인심도심"과 "이기"를 주제로 한 학술 논쟁이 산생되었다. 필자는 조선 이학자의 육왕학에 대한 강렬한 비판과 조선 학자 간의 "인심도심"과 "이기" 논변이 모두 "삼부대전"을 이해하고 천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현상이라고 인위한다. 16세기 말 임진왜란 이후, 허균(1569-1618), 정제두(1649-1736)를 대표로 하는 조선 이학자가 육왕학을 섭렵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삼부대전"의 관학 지위를 부정하려 하지 않았다. 총이언지, 시대의 변화에 수착하여 관학 이외 사상 방면에서 정주 이학과 육왕학의 영향력이 소변화가 있었으나, "삼부대전"의 영향은 줄곧 조선 관학 사상과 반수했다. "삼부대전"이 조선반도에 전입된 이래 조선왕조 멸망(1910)까지, "삼부대전"은 조선왕조 이학사상 여전히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